

‘명작의 고향’ 마케팅... 그림속 풍경 찾아 관광객 몰려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2〉 박수근 화백과 강원도 양구

평생 가난하게 살다간 가장 한국적인 화가
양구군 매년 5억여원 들여 작품 구입
기념관·미술관 매년 전국서 5만여명 찾아



박수근 미술관이 들어선 강원도 양구는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가장 한국적인 화가'를 배출한 예술의 고향으로 발돋움 했다. 사진은 박수근 미술관 전경. /양구=김진수기자skypark@kwangju.co.kr



박수근 화백 동상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라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박수근)

박수근. 가장 한국적인 화가. 미석(美石) 박수근(1914~1965)을 지칭하는 수사는 명확하다. 위대한 예술가에게는 나름의 수식어가 따른다. 최고의 아티스트, 세기의 예술가 등...

그러나 '가장 한국적인 화가'라는 수사는 여타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어떤 장르의 예술가든 '가장 한국적'이라는 타이틀은 한 명예에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박수근은 일평생 가난한 예술가로 살다 사후에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기억되었다. 그의 작품과 삶, 그리고 지향했던 가치가 시대를 초월해 한국인의 감성과 맞닿아 있다는 방증이다.

그는 이를 엮는 서민의 삶을 단순한 선묘로 표현했다. '빨래터', '나무와 여인' 같은 작품은 거친 화강암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질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아마도 투박하면서도 순수한 질감이 일평생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듯 하다.

강원도 양구에 가면 박수근 생가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박수근 미술관이 있다. 양구군은 지난 2002년 생가가 있던 자리에 미술관을 건립했다.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에 전착했던 화가를 대표 인물로 선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작년에만 5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미술관을 찾았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미술관을 관람한 뒤, 지역 특산물인 시래기와 사과를 구입한다.

사실 고향 양구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곳이다. 정춘호의 한때, 군생활을 이곳에서 했던 이들에게는 고단하면서도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양구는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먼 지역인 것만은 분명하다. 작금의 양구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전망대, 제4망골, 편지봉(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때문이다. 6·25 당시 남과 북의 치열한 격전지가 '명소'가 된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다.

빛고을에서 양구까지는 버넉잡고 차로 6시간. 남도 산하와는 다른 강원도의 풍경은 겨울에 더 매력적이다. 준령의 산줄기와 희끗한 서설의 흔적, 눈 시린 메마른 하늘은 더러 이국적 감성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 끝없이 이어진 산의 파노라마는 삶의 현장 내지는 생의 일부로 인식될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박수근미술관은 양구의 자연과 미학적인 조화를 이룬다. 미석의 작품세계와 예술혼이 응결돼 있어 소박한 삶의 흔적을 가능할 수 있다. 양구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양구는 더 이상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강원도의 한미한 지자체가 아니다. 양구군은 매년 미술품 구입에만 5억 이상을 지출한다. 물론 미술애호가들로부터 작품을 기증 받기도 한다. 현재 박수근 화백의 그림은 1호당 가격이 4억~4억5천에 형성돼 있을 만큼 국내 최고가다. 미술관에는 '비둘기', '굴비', '시장의 여인들' 등 다수의 명작들이 비치돼 있다.

미술관의 부대시설도 여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2만

크 기능을 담당한다. 사계의 풍광이 이곳으로 들고나며 미석의 예술혼을 보여준다.

“박수근 화백이 자연의미를 그대로 화폭에 옮겨왔듯이, 이곳 미술관도 자연을 공간으로 옮겨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토(盛土)를 하거나 절개하지 않고 원래의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죠.”

박수근미술관 감성택 팀장의 설명이다. 둘러보니 미술관은 주변의 산세와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곳은 어느 미술관과 달리 입구가 앞쪽에 있지 않다. 돌담을 에둘러 반대편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통유리로 된 입구가 나온다. 화강암 재질의 작은 돌을 쌓아올려 만든 돌담은 미석의 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수근 미술관 전시실을 둘러보는 관람객들

여 평의 박수근기념공원에는 미술관을 비롯, 등산로, 창작스튜디오, 공방 등이 자리한다. 기념전시실에는 소장작품과 선생의 손때가 묻어나는 유품, 사진, 편지, 스크랩북, 자녀를 위해 그린 동화책 등이 비치돼 있다. 다양한 오브제에선 화가 박수근의 인간적인 면모가 묻어난다.

연중 운영되는 교육 내용도 다채롭다. 박수근 따라 그리기, 판화로 만나는 박수근, 이론과 실기로 진행되는 현대미술이카 데미들이 운영된다. 역량이 있는 작가들의 창작 공간과 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인기가.

한가지 이채로운 것은 생가를 상징화한 구조물이 있다는 점이다. 미술관 지붕에 설치된 사각의 투명한 구조물이 랜덤 마

기지가 미술관을 찾은 날, 서울 강남의 어느 독서모임 일행이 이곳을 방문했다. 박완서의 '나목'을 읽고 주인공 박수근의 고향을 둘러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김경애 씨는 “책에서 보는 것과 다른 감동이 있다. 토속적이면서도 차분한 느낌이 이곳의 산수와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박수근의 가난은 단순한 궁궁이 아니다. 그의 가난에는 소박한 정겨움이 담겨 있다. 가난이, 가난이 아니어서, 그의 삶도 그의 그림도 따스하고 아름답다. 물론 그의 작품에 드리워진 가난을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가난에서 피어난 한국적인 미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미를 말하는 건 바로 '진실함' 때문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1일째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리아트 -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중식 : 자유식 석식 : 호텔식
2일째 - 조식후-아침이 이쁜술일바다~외돌개 올래6.7코스트래킹 - 석부적테마농원-감귤따가체험-중문포구~별내천천양대, 천연난대림지대 -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3일째 - 조식후-민공예물전시장-조랑말체험 - 제주성읍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수상산간도로 - 예코랜드-기차타고꽃자랑(자연원시림)술지대관광 -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중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포함사항 : 선박및항공료, 현지차량료, 일일내외입장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옵션(현지식), 기사, 가이드팁 1인 ₩10,000원
 * 동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상여행사 1인 ₩20,000원

※ 참가일정 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상월은주중제외됩니다. ●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 산악회 별도모의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무박2일
 1박2일, 1박2일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함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줄다리, 조식, 중식(상동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실), 줄다리, 식사(중식2회, 석식회, 조식회), 여행자 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명구 H.P : 010-3999-3226

황해 산악회 매일 첫째주 화요일 두일동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이서 : 문명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명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